

A Study on the Scythian Buckle

Kim, Moon-Ja

Suwon University

During the first millennium B.C., many horse-riding nomadic tribes controlled the vast Eurasian steppes to the north of the Black and Caspian seas. Some of the nomadic groups—particularly Scythian tribes that lived in the plains north of the Black Sea—were described by the Greek historian Herodotus in his *Histories*. Scythian bound the leather belts that was hanged a hook that shaped of different kinds at the end on the upper garment.

Through the antique records and tombs bequests the styles of Scythian Buckles was divided into three groups, animal-shaped, animal fight-shaped, rectangle-shaped, retangle openwork-shaped Buckle.

In a nomadic society where wealth must be easily portable the craftsman's efforts were put into small items such as gold jewelry, belt buckle. With a magnificent understanding of composition and the essential nature of the material, craftsmen fashioned utilitarian objects in animal form: weaponry, horse trappings, clothes, ornaments and jewellery and other everyday objects were all decorated with zoomorphic motifs. In Scythian art the multitude of animal representations well illustrates the preoccupation of this nomadic people with animals in their environment. Usually only wild animals are represented. The occasional exception to the wild animal rule is domesticated horses-important because the Scythians were horse breeders and their whole culture revolved around their dependence on the horse. Animal-shaped style reflected the mythology, the ethical and aesthetic ideals of the warrior-nomad. Animals were considered to have magical power

and to provide protection against evil or disaster and representations of them thus occupied an important place in life.

The purpose and meaning of the animal motifs used in Scythian ornaments appears that in some cases the work was intended to be purely ornamental, while many times the motifs had symbolic meaning (such as the successful dominance of the aggressor over the victim portrayed in the attack scenes). Magical use of symbols may have been intended to guarantee the power of the aggressor.

Following earlier Scythian migrations, Sarmatian animal-style art is distinguished by complex compositions in which stylized animals are depicted twisted or turned back upon themselves or in combat with other animals. Without copying nature, they accurately conveyed the essence of every beast depicted. The highly stylized modelling uses bold accentuated planes, while distinctive features associated with particular species are emphasized and exaggerated.

Buckle clasps were frequently made of precious metals and embellished with polychrome inlays of stone and glass. In Korea ,through the antique records and tombs bequests the styles of Buckles was horse-shaped and tiger-shaped Buckles that were influenced by scythie style.

스키타이계 버클에 대한 연구

김문자

수원대학교

본 연구는 고대 유라시아의 스텝 지대에서 보편화 되었던 스키타이계 버클의 양식에 대한 고찰이다.

B.C 1000년 많은 유목기마민족들이 넓은 유라시아 대륙을 흑해에서 카스피해까지 지배하였다. 그중 특히 헤로도토스의 <역사>에는 흑해북안에 살던 스키타이족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었는데, 스키타이인들은 상위 위에 서로 다른 모양의 대구가 달린 가죽 벨트를 매고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키타이 우두머리들의 고분에서 출토된 스키타이 버클의 양식을 분류하고 그 상징적 의미를 고찰하는 것이다.

고기록이나 고분출토품들을 통해서 스키타이 버클양식은 동물형, 동물투쟁형, 장방형, 투조장방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유목사회에서 부는 장인의 노력에 의해 금으로 된 장신구나 벨트 버클과 같은 작은 물건들에 담겨서 쉽게 운반 될 수 있어야만 했다.

구조의 대담한 이해와 재질의 본질적 자연성과 함께 장인들은 실용적인 대상들을 동물 형태로 유행시켰다: 무기, 말 재갈, 의복, 장신구, 보석, 그리고 모든 일상의 물건들 모두를 유목적 모티브로 장식했다.

스키타이 예술에 있어서 동물 표현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유목민들이 그들의 환경 속에서 무엇보다도 동물들이 우선됨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보통 야생동물들이 표현되었으며, 예외적으로 야생동물 외에 가축인 말이 중요한데 이는 스키타이인들이 말사육자들이며, 그들의 전체 문화가 말에 의지하며 주기적으로 순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형 양식은 유목민 전사의 신화적, 윤리적, 미적 신념을 반영하고 있었다. 동물들은 악이나 재난에 대항하여 방어력을 제공하며, 마

법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들 삶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간주되었다

스키타이 장신구들에 사용된 동물 모티브의 의미와 목적은 단순히 장식적으로 사용되기는 했지만 반면, 그 모티브들은 상징적 의미(공격 장면에 그려지고 있는 희생물을 덮치는 공격자의 성공적인 우월성과 같은)를 가지고 있었다. 매력적인 상징성은 공격자가 갖는 힘의 보수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스키타이인들의 이주와 함께 사르마타이 동물 양식 예술은 몸을 뒤틀거나 뒤를 돌아보는 식이나 투쟁하는 식의 형상화된 동물양식으로 복합적인 구조로 차별화되고 있었다.

자연의 모방을 넘어서 모든 짐승이 표현하고자 하는 본질을 정확히 전달하였다. 고도의 양식화된 표본은 대담하게 두드러진 평면형을 이용하고, 반면에 특별한 종과 연관된 독특한 형상들은 강조되고 과장되었다.

버클들은 자주 값비싼 금속이나 돌이나 유리에 다양한 색채의 안료를 감입하는 식으로 표현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기록과 고분출토품들을 통해 고찰된 바에 의하면 마형대구와 호형대구가 스키타이계 양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